



## 곤충에 대한 의문 3가지

최종욱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업소  
수의사/동물컬럼니스트  
lovenat@hanmail.net



여름에는 더위와 더불어 동물들을 정말로 괴롭힌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파리와 모기이다. 이때쯤엔 동물사로 동물 치료하러 가서 약간이라도 방심하면 모기떼의 습격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 된다. 심지어 두꺼운 옷까지 뚫어대며 무차별 물어댄다.

만약에 내가 동물이라고 가정하고 이곳에 하루만 이런 상태로 넣어진다면 난 아침에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되어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런 생각이 미치는 날은 어김없이 연막소독기로 소독약을 퍼부어 대지만 사실 방역이란 게 거의 일과성으로 그치고 괜히 내 기분만 좀 나아지지 동물들에게는 별로 혜택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방역보다는 가을날 찬바람 한번으로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어 버린다.

이런 상태를 경험하면서 자꾸 쌓여가는 의문은 '그럼! 내가 하루도 못 견딜 이런 혹독한 환경을 동물들은 어떻게 극복해갈까?' 하는 것이다. 동물들한테 가진 무기라야 겨우, 자기

등짝에도 못 미치는 꼬리 하나가 고작이다. 그나마도 생각나면 한 번씩 흔들어 털 뿐 별다른 뽀쪽한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가축은 생산성이 돈과 직결되다보니 이런 해충들을 없애려고 벽에 바르는 약, 뿌리는 약 그리고 방충막 등등 온갖 물리·화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퇴치하려 하지만 동물원 동물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벌써 몇 십 년째의 여름을 그런대로 잘 버텨나가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밀림 같은 곳에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벌레들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데 그 많은 야생동물들은 그 속에서도 용케도 잘 살아가고 있다. 아마 동물들에게는 천연의 비책이 있음이 분명하다.



미쳤다. 만일 그들이 때로 덤벼들었다면 난 아마 죽음을 면치 못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나의 희생으로 벌에 대한 인류의 미움도 한층 높아졌을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 신기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나비에 관한 것이다. 식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유심히는 안보는 데 마침 사무실 앞에 야생화가 여러 종류 심

어져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는 데 야생화 종류마다 앉는 나비 종류가 모두 틀린 것이었다. 잘못 보았나 싶어 다음날 다시 보아도 역시 노랑나비, 호랑나비 앉는 식물 종류가 각기 틀렸다. '꿀맛은 비슷 할텐데도 서로 이렇게 구분이 있는 걸 보면서 참 재미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조정하는 지 궁금증이 더 앞섰다.

이 지구상 동물종의 80% 이상을 곤충이 차지할 만큼 바로 '곤충의 행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너무 무시하고 때로는 거의 적으로 간주해버린다.

간간히 중국이나 아프리카에서 어느 곳에서는 메뚜기 떼가 일시적으로 번창하면 그곳은 황무지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열대지방에선 불개미 떼의 행군이 한번 시작되면 그들이 지나간 곳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만일 곤충들이 생각 한번 잘못 먹으면 고스란히 이 지구는 곤충의 손에 넘어가는 건 시간문제다. 하지만 그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는 평화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런 그들에게 괜히 우리가 먼저 탄지를 걸 필요가 있을까? fin~ ♡



그것이 면역이든 아니면 천연방어물질이든 공생관계가 되었던 그 기전을 알아내기만 하면 인류도 자신까지 서서히 죽이는 살충제의 위해로부터 벗어날 무언가 단초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직접 겪은 단순한 사건에서도 곤충에 대한 의문이 한 가지 더 생겨났다. 작년 가을에 산에 밤 주우러 깊숙이 들어갔다가 말벌에게 쫓겨 내려온 적이 있었다. 그때 온몸에 한 20여방은 쏘이고, 끝까지 따라온 2마리까지 으깨어 죽이고 서야 겨우 살을 반복해서 찌르는 듯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나중에 차분히 생각해 보니 '그 말벌들에게는 내가 느닷없는 침략자이니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과 그러면 왜 때로 안 덤비고 한두 마리만 공격했을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